

투어 번호
LKR9FAMYNP

자연의 최고 (15일)

15일 · 14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5일 투어는 남부 해안에서 시작하여 스리랑카의 열대우림과 야생동물 심장부를 지나 언덕 지대와 문화 삼각지로 마무리됩니다. Galle의 해안 습지와 식민지 시대 요새 건축에서 시작하여 Sinharaja 열대우림, Yala의 건조 지역 평원, Ella와 Nuwara Eliya의 언덕 마을을 거쳐 Kandy, Dambulla, Sigiriya를 돌아보고 Colombo에서 끝납니다.

여행객들은 야생동물 만남(Madu River 보트 투어, Sinharaja 숲, Yala와 Minneriya 사파리, Pinnawala 코끼리), 야외 활동(래프팅, Ella Rock 하이킹, Horton Plains 산책), 역사유산 명소(Galle Fort, Temple of the Tooth Relic, Dambulla 동굴 사원, Sigiriya 암석 요새)와 함께 해안 및 고지 풍경, 마을과 Kandyan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어는 전 여정에서 개인 운전기사 겸 가이드와 함께 진행되며, 매일 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의 명소, 활동, 지역 전통을 둘러봅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갈레

투어는 해안 습지를 따라가는 보트 여행과 남부 해안 근처의 거북이 보호 프로젝트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마두강

맹그로브가 늘어선 마두강을 따라가는 2시간의 보트 투어로, 일광욕하는 악어와 물왕도마뱀, 계피를 채취하는 섬, 물새들을 지나치며 물고기 마사지를 체험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SUPindia · CC BY-SA 4.0

거북이 부화장

스리랑카 해안에 알을 낳는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 다섯 종을 보호하는 코스고다 터틀 케어 프로그램을 방문합니다. 방문객들은 새끼 거북이를 보고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으며, 부화장에서 보호 중인 부상당한 성체 거북이도 볼 수 있습니다.

Day 2 갈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옛 요새 도시 갈레를 탐방하는 하루입니다.



갈레 요새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로, 박물관과 등대, 그리고 여전히 네덜란드식 이름을 간직한 자갈길이 남아 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요새를 걸으며 식민지 시대의 건물과 이야기를 둘러보고, 킹코코넛이나 차 한 잔을 즐기는 시간도 가집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3 갈레 → 신하라자

신하라자로 가는 길에 차 공장과 해안의 전통 장대 낚시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한두누고다 차 공장

손으로 전혀 만지지 않고 채엽하고 가공하는 버진 화이트 티로 유명합니다. 방문 시 차와 초콜릿 케이크를 함께 맛보는 시식 시간이 포함되며, 기념품으로 찻잎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코갈라의 장대 낚시

대대로 이 기술을 전승해온 어부들이 해안을 따라 장대 위에 걸터앉아 낚시를 합니다. 장대 낚시가 스리랑카에 전해진 유래를 들으며 그 기술을 직접 볼 수 있고, 해 질 녘 해안선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서 있는 어부들을 촬영하기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Day 4 신하라자

스리랑카 유일의 열대우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신하라자 숲 보호구역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신하라자 숲 보호구역

울창한 상록 원시림을 가로지르는 정글 사파리로, 머리 위에서 울리는 원숭이 소리와 화려한 숲새들을 엿볼 수 있으며, 초록 독사를 나뭇잎 사이에서 발견할 기회도 있습니다.

Dan Lundberg · CC BY-SA 2.0

Day 5 신하라자 → 얄라

얄라로 가는 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 분수구 중 하나를 들릅니다.



후마나야 분수구

쿠다웰라 마을 근처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분수구입니다. 바닷물이 바위를 뚫고 위로 솟아오르며 깊은 울림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6 얄라

섬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얄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기는 하루입니다.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으로, 표범, 야생 물소, 느림보곰이 서식하며 대규모 코끼리 무리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7 얄라 → 엘라

지역 전설이 서려 있는 폭포와 산악지대 최고의 전망대까지 오르는 하이킹이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라와나 엘라 폭포(라바나 폭포)

엘라-웰라와야 도로에 있는 우두누와라 마을 근처에 위치한 이 폭포는, 라와나가 시타 공주를 뒤편 동굴에 숨겼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라 록

약 3시간에 걸쳐 오르는 하이킹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에 도착합니다. 오르는 길에 나무누쿨라 산맥과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경을 볼 수 있으며, 정상에서는 반다라와라 산맥, 푸나갈라 언덕, 나랑갈라, 엘라 갭, 바둘라 기차 선로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Day 8 엘라 → 누와라엘리야

옛 영국 식민지 시대의 고지대 휴양지였던 누와라엘리야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던 휴양지로, 그 시대의 코티지와 저택, 맨션이 늘어선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옛 우체국이 볼거리이며, 퀸 빅토리아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숫가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9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고산 초원 지대인 호튼 플레인스로 다녀오는 당일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에 위치한 고산 초원과 운무림 지대로, 월드 엔드 절벽에서의 전망과 베이커스 폭포의 시원한 물보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원에는 수많은 고유종이 서식하며, 고고학적 발굴 성과도 있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10 누와라엘리야 → 키툴갈라 → 캔디

캔디로 가는 여정에는 급류 래프팅과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코끼리 보호소 방문이 포함됩니다.

켈라니강 급류 래프팅

켈라니강의 5km에 이르는 급류 구간을 따라 내려가는 래프팅으로, 안전 조치가 전 과정에 걸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핀나왈라 코끼리 고아원

사바라가무와 지방의 핀나왈라 마을에 위치하며, 자연 서식지에서 쫓겨나거나 길을 잃은 어린 코끼리들을 보호합니다. 약 70마리의 코끼리가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육 코끼리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코끼리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1 캔디

캔디 전통 공연 예술과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성지를 함께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캔디 전통 공연

불춤, 칼춤, 그리고 드럼 연주에 맞춘 캔디 전통 무용 등 스리랑카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1시간 분량의 공연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불치사(치아 사리 사원)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사원은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홀과 조각된 기둥, 금박 입힌 불상들이 특징입니다.

A.Savin · FAL

Day 12 캔디 → 마탈레 → 담불라

담불라 석굴 사원을 둘러본 후 오후에는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기는 하루입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원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 및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신성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 그레이트 뉴 모나스터리 등이 포함됩니다.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민네리야 국립공원

3시간에 걸친 공원 사파리로, 5월부터 10월까지 건기 동안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합니다. 공원의 관목지와 숲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서식합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13 담불라 → 시기리야 → 콜롬보

시기리야 바위 요새 등반과 전통 마을 생활 체험이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카샤파 왕이 세운 5세기의 바위 요새로, 거대한 사자 발 모양의 입구로 들어가는 것에서 '사자 바위'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오르는 길에는 유명한 고대 벽화와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가파른 계단을 지나며 궁전 유적까지 이어지는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시기리야 마을 체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방문하여 소달구지 타기, 고요한 호수에서의 카타마란 사파리, 논길 산책, 전통 요리 시범 등을 체험합니다. 체험은 연잎 위에 짠 쟁반으로 차려지는 가정식 점심으로 마무리됩니다.

Day 14 콜롬보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를 탐방하는 하루입니다.



콜롬보 시티 투어

올드 라이트하우스,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국립 박물관 등 수도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독립 광장과 레이스 코스 주변의 쇼핑몰, 부티크, 디자이너 매장에서 쇼핑을 즐길 시간도 있습니다.

Gihanud2001 · CC0

Day 15 콜롬보 → 공항

아침 식사 후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Accommodation at 3 Star Hotels.
- Meal plan on Bed and Breakfast basis.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